

교육부 '희망학교' 지원체계 불균형 논란

# 원인·과정 없이 결과진단... 교육의 선택적 지원 우려

학업성취도 평가 쟁점 '전수·자율' 교총 "학교 희망 의존방식 부적절" 교육부 "문제점 있다면 개선책 모색"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희망학교' 지원 체계가 교육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전략'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체로 줄어들고, 고2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9월부터 '희망학교'가 원하는 날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방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날인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 책상에 시계가 놓여 있다. /뉴시스

식은 계속해서 주목받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전수 평가가 아닌 자율 평가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딩 교육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량에도 불구하고 의무 교육이 아닌 선택 교육을 시행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모든 학생들이 교과별, 영역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전면 등교, 대학생 튜터링 등 방안을 모색

했지만 학력 미달은 오히려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학교 학력 평가 등 교육의 선택적 지원을 되풀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다.

교총은 "학습 결손의 누적은 학교 부적응,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업 부진이 학생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희망에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한명한명에 관심을 갖고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기반의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의 변화보다는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된다"며 "아이들의 학습 부진에 대한 체계

적·종합적인 원인을 밝혀 처방 가능한 진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역이라면 해당 학생이 소설의 개념을 모르는 것인지, 인물의 종류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 과정이 없이 아이의 결과를 진단하는 것은 컴퓨터나 종이나 크게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전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선택적 지원 개념이 아닌 시범 사업 비슷한 과정에 있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모색해 완성된 방안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평가 대상 학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교육과정 성취수준 점검 등을 위한 자율평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첫 '통합수능' 후폭풍... 서연고→서고성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종로학원 수능 평균점수 분석 주요 대학 인문계열 합격점수 ↓ "올해도 수험생 혼란 지속 될 것"

문·이과 통합수능 여파로 주요 대학 인문계열 정시 합격 점수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입시업계 분석이 나왔다.

14일 종로학원이 올해 주요 19개 대학 정시 합격생 중 상위 70%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백분위 평균 점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 인문계열의 평균 합격점수가 통합수능 이전인 2021학년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세대의 하락 폭이 287.9점에서 269점으로 18.9점 떨어져 가장 컸다. 인하대 18점(247.5점→229.5점), 숙명여대 16.2점(262.9점→246.7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성균관대는 280.6점에서 277.2

점으로 3.4점 하락에 그쳐 종로학원이 분석한 대학 중 통합수능 여파가 가장 작았다. 이에 2021학년도는 인문계열 합격 평균 점수 6위였던 성균관대가 2022학년도엔 서울대, 고려대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다.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연세대는 4위 한양대(275.1점), 5위 이화여대(271.6점)에 이어 6위로 밀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 전환으로 수학에서 불리한 문과학생들의 합격점수가 중상위권 모든 대학에서 합격점수 하락으로 연결됐다"며 "서연고 순서마저 바뀔 정도로 통합수능의 영향력은 대단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처음 도입된 문·이과 통합수능은 수학에 불리한 문과생들이 대입에서도 상대적 열세라는 논란을 낳았다. 문과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보다 이과생들이 고르는 '미적분·기하'가 조정 표준점수를 받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실제 19개 대학 중 6개 대학 자연계열에서는 정시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수능 전후 최대 하락 폭도 6.7점(송실대, 256.4점→249.7점)으로 인문계열보다 그 여파가 작았다.

이에 통합수능 2년차인 올해에도 대입 지원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혼란과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임 대표는 "(올해 정시에서) 대학·학과 간 점수 변동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수험생 또한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 상황도 더욱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이화여대 대학교회, 적십자사에 성금 1640만원 전달 이화여대대학교회와 대한적십자사는 12일 동안 산불피해 복구 및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성금 164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부활절에 이화대학교회 성도들의 감사헌금으로 마련됐으며 성금은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과 소실된 산림 복원, 우크라이나 피란민 인도적 지원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화여대학교회

## 충남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 최우수상 수상

순천향대 찾아가는 서비스 등 성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충남금연지원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1년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금연지원센터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 반복 재흡연자, 흡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시도와 실천율을 높여 국민 건강수명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전국에 17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남금연지원센터(순천향대 산학협력단)는 위기 청소년, 장애인 금연 사각지대의 흡연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신하은 기자

## 교육부, 유치원 통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유아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면서 부처간 교육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부처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에도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 종이 서류를 줄여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한신대, 도서관 이용 활성화 이벤트 진행

황금티켓 도서 대출 학생에 경품 증정

한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재학생들의 독서 활동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황금 티켓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했다

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중앙도서관 3층 문학서가(한국소설, 에세이)코너에서 황금 티켓이 들어있는 도서를 대출한 학생(총 30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증정했다. /신하은 기자